

전남도 추진 150만~200만평 지방산단

장흥·강진·보성 유치전 가열

공정 기준없이 후보지 선정땀 후유증 우려

장흥과 강진·보성군 등 전남 중·남부 지역 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라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들 지역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화에서 소외된 FTA체결로 극심한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전남 중·남부권의 발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3개 지역 가운데 한 곳에 지방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산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민들은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남 중·남부권은 별다른 국책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단 유치가 지역개발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들 사이에서는 오는 11월 산단 후보지에서 탈락한 2곳이 드러날 경우 전남도의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전남산 천일염 개발 본격화

산자부 기술혁신 연구개발사업 선정돼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품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전남산 갯벌 천일염에 대한 연구개발이 본격화된다.

을 연구 개발한다. 특히 천일염은 그동안 광물로 취급됐으나 '염 관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개정 후 식품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보성 울포 '아름다운 어촌'

여수 해양수산청 선정

보성군 울포마을(사진)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해 '이달의 아름다운 어촌'으로 선정됐다. 울포 마을은 특산물 중단부에 위치한 어촌으로 해수 녹차탕과 울포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보성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신식 파도풀장과 튜브 슬라이더 등을 갖춘 울포 해수욕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음달 6일 개장된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해남군 지방세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그동안 농협에서만 취급했던 해남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이달 정 기본 자동차세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금융결제원의 중앙집중식 결제제도(e-GIRO)와 금

융기관에 연결된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다. 납세자는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자동차세에 이어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내년 1월 면허세 등의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면 된다.

문의 해남군청 세무회계과(061-530-5578) /해남=박정목기자 jopark@



소외된 이웃에 88회 봉사활동

지난해 7월 창립된 사단법인 한빛 여성봉사단(회장 심정희)이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 한빛 여성봉사단

노인위안잔치 등 펼쳐

한빛 봉사단 회원들은 지난 1월과 5월 광산구 우산동 콜럼버스 웨딩홀에서 관내 노인 1천여 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노인 위안잔치를 벌였다.

/광주=김연희기자 pyj4079@

연분홍 물감 뿌린 듯... 여심 유혹하는 송업국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황금박쥐공원에 활짝 핀 송업국이 연분홍색 물감을 뿌려 놓은 듯한 아름다운 자태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함평=박정목기자 jopark@

화순 '쓰레기 대란' 장기화 되나

능주매립장 주변 주민 반입 저지로 11일째 수거 중단

화순에서 11일째 일관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대란'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화순지역은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능주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지난해 28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11일째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능주위생매립장 주변 주민 김모(45)씨는 "능주위생매립장 대체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11월 착공한 한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작년 말 공정을 45% 상태에서 법안 관결에 따라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내년에도 능주위생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쓰레기 처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소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화순읍 주민 한모(39)씨는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 한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능주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데도 그런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쓰레기 수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Advertisement for '심청쌀 최고급화 앞장설 터' (Heart of the Sea Rice). It features a photo of Song Gyeong-soon, the president of Gokseong Nongop Center, and text describing the rice's quality and the center's commitment to high-quality rice production.

Advertisement for '제주도 자리돔 축제' (Jeju Island Zari-dom Festival). It promotes a seafood festival with dishes like '자리돔회' (Zari-dom sashimi) and '자리돔국' (Zari-dom soup). The event is held from June 6 to 8 at Jeju Island.

Advertisement for 'BUCK SH' (BUCKISH) clothing store. It features a photo of a man in a suit and text promoting high-quality suits and jackets. The store is located in Gwangju and has multiple branches.

Advertisement fo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Shinyang Park Hotel Summer Wedding Festival). It features a photo of a wedding hall and text listing special offers for weddings, including discounts on food and drinks.